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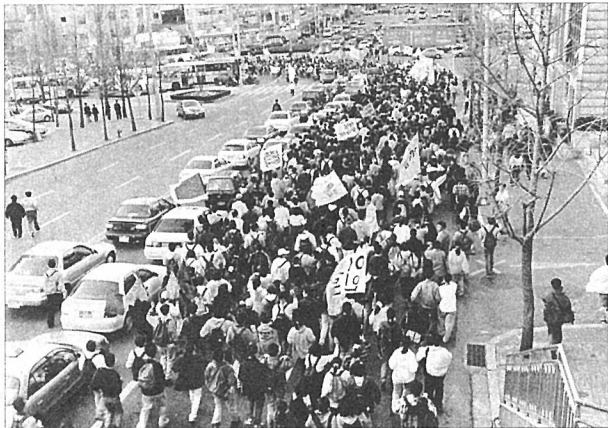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9년 4월 12일 (월) 제736호 창간 1958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국철 편집인 권영준 편집장 임승희 인쇄인 홍준주 최대신문사 961-4151, 962-7120(주) 최대정보 특검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통인) 0335-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2 경기도 용인시 오만면 황산리 신 88

4·2 한총련 총궐기 4·3 민중대회 성사

학생 5천여명 참여한 가운데 '미국반대' '김대중 퇴진' 등 요구



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미국의 전쟁책동, 경제침탈, 교육침탈 분쇄'와 '주한미군철수,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4·2 총궐기와 4·3 민중대회를 각 지역별로 진행했다.

이날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학생들 백여명은 노천극장에서 '4·2 한총련 총궐기 4·3 민중대회'의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청량리 역에서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전활동을 벌였다.

또 청량리 역에서의 선전활동 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사총련) 소속 4천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동대문운동장에서 추모로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고, 다시 지하철도를 타고 선전활동을 벌인 후 종제역에서 내려 두악산을 넘어 연세대로 들어가 정라집회를 가졌다.

12기 사총련 조국통일위원회의 위원장 최경남(광운대 총학생회장)군의 사회로 진행된 정라집회에서 사총련 의장 이영희(홍익대 총학생회장)군은 미 제

국주의 우리 민족 다 죽이는 정책들을 감당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가장 잘 부합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주한미군 철거, 민족자주 정취를 통한 90년대 연방통일조약 건설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고 주장한 후 집회를 정리하고 4·3 민중대회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다음날 마포10에 공원에서 열린 4·3 민중대회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민족의기본권보장및안심수련원학생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동대위) 주최로 1부 '4·3 제주민중항쟁 정신을 살려 미국의 전쟁책동 반대 및 공안단압 분쇄 결의대회'로, 2부 '제주 4·3 51주기 추모식 및 명예회복 촉구대회'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김규길 민족자주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은 "미국이 연일 유교에 폭탄을 쏟아붓고 있듯 우리나라도 지난 40년 전쟁범죄자까지 처벌한 사실이 있었

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전히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쟁책동에 불구하고 한국인 언론들은 잠잠하기만 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부릴기 위해서, 또 계속되는 굴욕적 외교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자주국가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라고 현 정세에 대해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종로공원을 행진을 하였으며, 이후 사총련은 왕십리에서 '미국의 전쟁책동 중단'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인 후 높은 정라집회로 마무리했다.

이번 총궐기와 민중대회에 참가한 우리학교 언론협의회 의장 박윤정(사회·행정 4)은 "민중들의 생존권이 미 제국주의와 김대중 정권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총련의 정당하고도 적극적인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장서윤 기자

서울전학대회 열려 연합공식기구인정

전체학생대표자의회의(전학대회)가 7일(수) 대강당에서 열렸다.

총 재적인원 184명 중 100여명 참여로 열린 전학대회에는 △최학개정안 △신출안인 △인준안인 △신사안인 등이 상정됐다. 또한 의회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총학생회 총노선에 대한 안건 등이 토의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됐다. 이에 최학개정으로 언론협의회가 92표의 찬성표를 얻어 최학개정으로 공식기구로 등록되었고, 집행위원회는 101표의 찬성표를 얻어 총학생회 특별기구 중재기구로 인준됐다. 이에 최학개정으로 언론협의회가 92표의 찬성표를 얻어 최학개정으로 공식기구로 등록되었고, 집행위원회는 101표의 찬성표를 얻어 총학생회 특별기구 중재기구로 인준됐다. 이에 최학개정으로 언론협의회가 92표의 찬성표를 얻어 최학개정으로 공식기구로 등록되었고, 집행위원회는 101표의 찬성표를 얻어 총학생회 특별기구 중재기구로 인준됐다.

그러나 이번 전학대회 역시 회의 중간에 대의원들이 무더기로 빠져나가 정족수에 미달되는 등 예년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편집기사 2면
류재석 기자

한총련 대대회 16일 개최

의장선출, 총노선 인준 안건 상정

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오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2박3일간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7기 한총련 의장 선출 △중앙집행위원회 인준 △총노선 토론회 및 확정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의 연대투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일(금) 한총련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회의 부총재, 서울지하철노동조합장,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최지인 홍익대 총학생회측

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우리학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반야 정부당국이 원천봉쇄를 강행할 경우 학우들과 함께 불법적인 불참집회 반대투쟁 등 여러 부정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지난날 30일 대안법원의 '한총련 이력단체 적용불가 판결'로 정부당국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7기 한총련 의장 후보로는 윤기진 임시시의장(법치대 총학생회장)이 단독 입후보한 상황이다. 사비부

양배움터 정기학생총회 개최

서울·영인 각각 13일, 15일 노천극장에서

서울 서울배움터 정기학생총회가 13일(화) 5시에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정기총회는 전학대회 결과 보고와 33대 총학생회 총노선 보고가 보고인건으로 상정된다.

또한 교육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99년 새내기 문예단의 공연도 진행된다.

한편, 당일 4시에는 모의월드컵 우승팀인 신문방송학과와 타 과 축구팀연합의 축구시합이 진행되며, 영화도 상영된다.

영인배움터 정기학생총회(영총)는 15일(목) 노천극장에서 '동북공식각과 용인배움터 발전방안'에 대해 7천 학생들

총 및 해오름식은 지난 28일(금) 정국수 미달로 무산된 후 다시 열리는 것이며 이 행사에 대한담을 지난 행사때와 달리 출전대로 교비지급을 할 예정이다.

동북공식각주행 정점화 시기에 열리는 이번총회에서는 △한미기 사립 결의 △왕산중심 외대통합 발전 논의 △20주년 기념사업 준비 상황보고 등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총회후 4·19 마포대운동에

에서는 학생회관에서부터 모현사거리까지 각각, 개인 대항으로 경기가 펼쳐진후 시상식과 폐막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류재석·우혜나 기자

중간고사 관계로 다음 발행일은 5월3일(월)입니다.

대학구조조정 반대 집회진행

대학당국의 비민주적·일방적 행정 규탄해

사법대, 상경대, 서양대 학생회는 8일 본관앞에서 대학당국이 추진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이 날 집회는 대학당국이 최근 상경대 무역학과 폐과 및 사법대 4개과 통합 등 거의 모든 단과대학에서 학부제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항의를 표시하려는 뜻에서 열렸다. 이에 상경대 학생회장 구준희(무역 4)은 "학생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30여명이 참가한 이 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대학당국이 추진하는 구조조정

에 반대하는 뜻에서 상경을 하고 본관 주위를 행진했다.

또한 청정실 앞에서 항의의 구호를 외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뜻을 담은 백지대자보를 총장실 벽에 붙였다.

사양대에 학생회장 추진길(서반야 4)은 "40년 전 한 상경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학생의 편이냐는' 상경에는 방한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계획은 재고되



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당국은 20일(화) 구조조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제 등 학교측의 구조조정안을 최종 결정할 후 교육부에 올릴 계획이다.

우리는 대학생입니다.
학생회는 우리의 자치조직입니다.
총학생회장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한총련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입니다.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는 정부로부터 평화적 개최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아보~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홍익대에서 한총련임시대의원대회를 합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DJ식 불 지피기

▲ 김대통령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다. 부뚜막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작정 숯에 불을 붙여 불을 아궁이 속에 추서넣고 있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 아궁이 속으로 채 마르지 않은 상태로 태우니 쉽게 타다가 없다. 아랫면 밑은 잘타는 건조타이어를 불에 찌는 등나무는 마구잡이로 아궁이속에 넣고 불을 지피는데. 그러다 열기는 열기인바이다.

▲ DJ는 지난 28일 국민회의 대회의에서 DJ의 입담을 싹쓸이 할때 '잊도록'을 내놓았다. "지금은 아궁이에 불을 때 아랫면은 온기가 들고 있으나 잊도록은 여전히 찬 상태"라고. 잊도록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개떡과 구조조정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김대통령은 숯을 가꾼다는 미명하에 한창 뻔이내고 있는 나무들을 마구 속아내 장작마루로 만들고 있다. 이제 곧 새장구멍을 하려는 어린 나무들까지도 많이.

▲ 아랫면은 DJ의 불장난으로 아랫면은 태워지고 있다. 28일(수) 1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산업자원부발표). 각 백화점 매출액 대부분 30% 이상 증가. 자동차 내수판매 전년보다288.1% 증가. 특히 대형차 판매 급증. 부동산 시장 활기...등. 최근 들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에 잘 팔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위해서 열거한 경제지표들 제시하면서 경기가 회복됐고 따라서 소비를 증가시켜야 경제가 더욱 더 원할해간다는 소비진작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경제상황에 불안한 예감이 든다. 우리가 정말 경제활황속에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뜨끈뜨끈한 아랫면 사람들은 대중사우나를 즐기며 환호의 소리를 지르고 잊도록 사람들은 추위 못살겠다며 울부짖으며 아우성이다. 실업률만 봐도 그렇다. 실업자가 정부 통계 2백만. 민노총 통계 8백만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실업 현상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연구원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 3.8%에 이른다 하더라도 해감성장률은 -1.2%에 그치며 일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을 뿐, 높은 실업률은 지속되고 있고 국민 대다수의 소득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다.

임승희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를 파헤친다

“군사력없는 경제대국, 이빨 없는 호랑이”

일본, 해외자본 활동의 안전 위해 군사대국화 추진

널굴며 굴러 들어온 호박

마침내 일본은 전후 50여 년간 갈망하던 소원을 거의 달성했다. 3월 23일 오전 6시 42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6분까지, 즉 고박 하루 동안에 동해에서 펼쳐진 자위대의 화려한 입체작전은 새로운 군사력이 동아시아에 등장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렸다. 그것은 자위대가 아니라 '일본군'이었다.

1985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으나 자위대는 공적하지 못했다. 자위대명칭 자위대는 영공침범에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 재석관들의 접근을 포착하고 가장 먼저 달려나간 현장 확인한 것도 자위대였고 마지막까지 추적한 것도 자위대였다. 자위대는 영해를 벗어나 일각에 불라리보스코프 코 앞 방공식별권 한계선에까지 다가간 마지막 계엄을 즐기는 아이들마냥 '괴뢰'에 예전 폭탄과 폭탄을 퍼부었다. 국외에서 심의 중인 주변 사법관이나 자위대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기도 전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 일본의 무력보유를 형식적으로나마 부정하고 있던 평화헌법은 이 한밤의 침입으로 완전히 휴지조각으로 되고 말았다. 물론 지난 95년 미일 신안보선언으로 평화헌법은 사실 식물인간 상해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처럼 밤을 무사한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국외에 출석한 총리나 방위장관 등 '해상경비법' 발동 책임자들은 여유만만했다. 국회의원들조차 오히려 왜 놀랐지 그랬느냐고 따졌다. 노무라 호에이 방위장관은 영공침범 아니라 영해, 영토침범에 대해서도 자위대 책임지는 '영역방위'와 무기를 확대해 위해 법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기세를 올렸다. 그리고 25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자위대는 21일에 이미 선박들의 동태를 알고 있었으면서 왜 해상보안청에 23일 늦게 알렸느냐"는 질문을 노무라 장관은 "배 이름과 신원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둘러대다가 금방 통통이 났다. 방위청은 사건 이를 전부터 손바닥 보듯 공작선들을 속속하고 지켜보다가 패가 되자 덮었다. 그 동안 얼마나 에타게 기다려왔던 일인데, 널굴며 굴러 들어온 호박을 쉽게 놓칠 수가 있었는가.

군사대국화로 가는 길목에서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세 살 먹은 어린이이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단순한 비교로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군사비는 미국 다음이다. 일본이 군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일본정부가 '방위계획'의 대강을 책정하면서

완이다.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10만명의 장교와 하사관으로 300~400만 명의 군대를 급조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이 단지 일본의 '자위'에만 쓰여진 군사력이라고 믿는 바보는 아무도 없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이나 미일 신안보선언의 '주변사태'—그 주요대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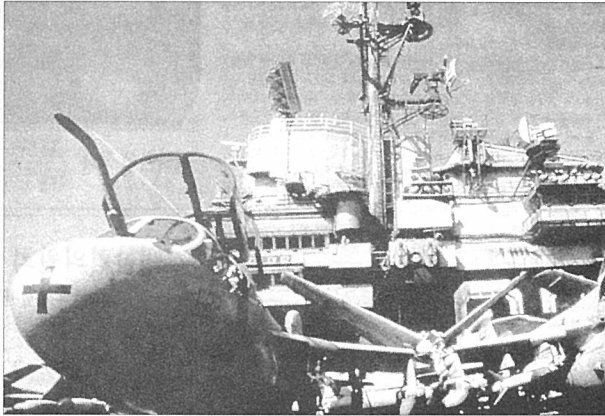
국제적인 대접이나 내부의 정국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항상 일본 보수세력을 자극하고 있다.

1992년 9월 17일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은 미야시타 소헤이 방위장관의 말처럼 일본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건이었다. 일본정

취할 경우 '군사참모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군사적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이 삼십이사국 참가의 사를 표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유엔의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외에서의 무력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삼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밤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가, 아니면 개성해야 한다. 1980년대부터 일본사회에서는 개헌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불침함모론'을 주장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강력하게 지향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있었다. 다음은 '침략전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카소네가 1964년에 작한 한밤 '한밤개성의 노래' 가사의 일부이다.

1. 아, 전쟁에서 패배당하여/ 적의 군대가 진주해왔다/ 평화, 민주의 이름 밑에서 침침한밤을 감당함으로써/ 조국의 해제를 도모하리라/ 때는 마침



일본은 군사대국화 추진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자위하고 있을 정도다.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요, 이를 줄이고 가져지고 있을 줄을 증명한다.

바로 한반도이다—그 일본의 '자위'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일본 군사력의 잠재성은 군사예산과 병력보다 더 무서운 첨단기술력에 있다. '결코전'은 일본의 반도체를 가지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다. 결코전에서 미국이 이라크군의 동태와 지령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전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의 위성항법장치에 일본 기술이 사용되었다. 또한 미군이 사용한 정찰 영상복합장치의 태반이 일본 본래였다. 일본은 일반용 IC(집적 회로) 생산에서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에 반도체가 미군 병기의 전자장치에 사용된 것이다.

위기에 놓인 '평화헌법'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의 길로 들어섰다. 문제는 경제대국, 군사대국에 걸맞

부다 캄보디아파병을 '역사의 전환점'으로 삼으려했던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깔려 있다. 즉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경제적인 국제공헌뿐만 아니라, '인적 공헌' (군대 파병)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대국이 되어 국제적 발언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마련한다. 그리고 2차대전 후 서자 취급을 받아온 자위대를 적자(국민의 군대)로 내세워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다. 우선 자위대 파병에 대한 일본 국민의 사상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며, 파병도 비군사적 분야에만 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상징적이지 않은데도 여전히 헌법이 걸려 있다. 한 예로 유엔헌장은 상임이사국에게 유엔의 군사적 행동을

위한 권리의 제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패전 전의 '원형적 국가'를 연상시킨다.

물론 밤을 무사한 한밤의 총성이 이런 상황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말을 것이다. 그러나 1931년이나 1937년의 사건들, 즉 군부내 파시스트 세력들이 밤을 무사한 채 전쟁을 도발하여 결국은 동아시아의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지난날의 악몽을 떨칠 수 없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그다지 과민반응일까. 그렇게만 치부하기엔 지난날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아직도 아물지 못한 데다, 일본사회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개조계획'과 정치대국화

"오지와의 일본 재정의 비전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것은 1993년 '제2의 명치유신'이라는 정치변혁을 주도한 오자와 기치로의 말이다. 그리고 그 '비전'을 담은 것이 바로 <<일본개조계획>>. 또는 21세기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려는 비전을 가진 세력들의 역량이 총결집되어 작성했다는 일명 '오자와 보고서'이다.

'일본개조계획'은 일본이 세계 GNP의 10%를 차지하는 '세계의 대국'으로서의 자기 위치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함께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어디까지나 "가려한 물에 작은 두두박에 가지지 못한 공룡"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일본이 세계의 대국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려한 물에 걸맞는 두두박을 갖추어야 하는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가 주장한 핵심이다.

오자와가 바라는 21세기 새로운 일본의 국가는 그의 말대로 하면 '보통의 나라'이다. 일본이 지금과 같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평화와 안정의 국제환경과 자유로운 무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의 나라'의 대요인은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나라이다. 이것은 특히 갈로 전쟁에서 일본이 단지 '현금자본주의'의 역할만을 했다는 비판과 연결된다.

이에 따라 '일본개조계획'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세계 2대 강국인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조, 수동적인 전수방위(專守防衛)를 기본으로 하는 (방위정책의 대강)의 근본적인 전환과 자위대의 재편, 유엔 역할의 증진과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진출, 평화유지군 활동을 위한 헌법 개정 또는 신설, 자유무역 체제 유지와 세계무역기구 창설,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의 신설 등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코 낡은 군국주의의 단순한 연명이나 복고주의의 대두는 아니다. 이 대국화의 움직임은 80년대 이후 나카소네 내각 때 시작해서 90년대 들어 가속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자본의 다국적 기업화, 즉 경제대국화로 인한 일본자본의 해외진출 증가에 있었다. 그런데 일본자본은 미국 등의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아시아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비중을 둔 진출구조를 갖고 있었다. 개도국의 값싼 노동력과 엄격하지 않은 규제가 매력적이었을 뿐 아니라 일본기업에게는 '보통'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80년대에는 연화폭동의 영향으로 일본자본의 해외진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80년대 말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올랐다. 그러나 그에 따라 일본은 해외자본 활동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스스로의 군사·정치적인 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정치대국화가 군국주의로 발전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분명 일본 사회에는 군국주의로 나가려는 경향과 그것을 제어하려는 경향이 공존하고 있으며, 아직은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80년대 이후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점점 오히려 기울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때 떠오르는 것이 (국화와 칼)을 쓴 루스 베네딕트의 지적이다. 일본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끝맺음으로 대신 인용한다.

"일본의 행동동기는 기회주의적이다. 일본은 만일 상황이 허락한다면,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 자기를 구축하려 한다. 그렇기 않게 되면 무장된 진영으로서 조직된 세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구축할 것이다."

김인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중전 6개월

2. 정령문은 명령한다/ 만약 이 헌법이 안 받는다/ 천황의 자위를 보장 안 한다/ 눈물을 머금고 우리 국민은/ 때아니 헌법을 받아들였다

5. 이 헌법이 존재하는 한/ 무조건 헌법은 계속되나/ 맥아더 헌법을 지키는 것은/ 맥아더 원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조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 흥국(興國)의 기세 펼쳐보자

개헌파의 주장은 '평화헌법'은 맥아더가 강요한 굴욕헌법으로 폐기하자, 그리고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현행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는 '천황'의 국가원수, 국군 참모,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하는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권리 내용의 금지와 공공의 복지를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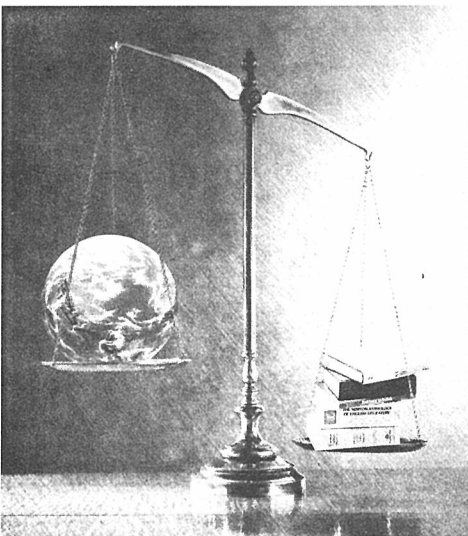
진리의 무게

확장시킬 젊음을 바쳐 공무에만 매달리는 일. 때로는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천년을 이끌고 나갈 아들이기에 끊임없는 연구와 부단한 탐구로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개발에 더욱 매진하십시오.

새로운 천년. 다음 세계의 주인. 바로 여러분입니다.

철강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





한술날- 나토의 유고공습은 불법이다

미국이여,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인권수호’ 내걸은 나토공습, ‘인권유린’ 가속화 불당겨

나토의 유고연방 공습은 ‘인도적 개입권’이라는 명분으로 수식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개입권’을 말하는 데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개입하는 측의 선의와 정치수사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인정돼야 하며, 국제법상의 관행을 이루는 국제법의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한 때 인도적 차원의 재난에 대한 ‘외부적 개입’의 문제는 3가지 경우로 나뉘볼 수 있다. 3가지 경우란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 인도적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 인도적 재난을 경감시키는 경우다.

코소보 사태에 대한 이번 외부적 개입은 폭력과 만행이라는 인도적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나토의 공습을 계기로 세르비아에게 코소보 알바니아에게 대한 테러에 나선 데 대해 헬슬라 클라코 나토군 사령관이 “완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이미 입증됐다.

게다가 나토의 공습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하던 국제법 질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유고 공습에 대해 나토 안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반대가 있었고, 프랑스는 나토군의 배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모든 것을 거부하고 무력사용을 추진했다. 미국은 공습을 명백히 한 최종 나토 명령에서도 “권한을 부여”한다는 표현을 거부하고 “승인한다”는 표현만을 쓰

록 함으로써,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이라크 공습 때도 마찬가지였다. 레이건 정부가 연 미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국면 속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국제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새뮤얼 헌팅턴은 《포먼티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약당 슈퍼파워’로 비치고 있다는 점을 은근히 지적했다. 세계 각국이 미국을 자신에 대한 유일·최대의 외부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코소보 사태에서 ‘예측가능함’ 폭력과 만행을 가속화시키는 길을 택했다. 물론 코소보 사태에 대한 이번 외부적 개입의 장기적인 결과는 그렇게 예측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코소보에서는 이제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가 대립하게 공존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은 분명히 예상할 수 있다.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 폭력과 만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그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히포크라테스의 원칙을 따르는 일이다. 이 원칙은 우선 “해로움을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초보적인 원칙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외교와 협상의 유효성이 사라



진 게 결코 아니다. 앞으로라도 인권 침해는 자주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 침해를 고지했다고 외부적인 무력개입이 허용된다면, 국가간 무역협상을 막을 수 있는 법질서가 존립할 수 없다.

인권의 수호는 국제법 질서를 파괴하는 무력행사가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MIT교수, 미국 대외정책 전문가)

세계 비판의 목소리들

“나토의 ‘방자한’ 전쟁에 반대한다”

유럽 각지, 나토 공습 반대시위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전쟁 반대’, ‘클린턴 살인자’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세르비아 국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였고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1천명의 시위대가 “미국인들은 살인자”라고 외치며 미국, 영국, 독일 대사관에 달걀을 던지며 항의시위를 했다.

폴란드에서는 수십명의 평화주의자들이 폴란드 거주 유고인들과 함께 바르샤바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했으며 불가리아에서는 1만여명의 시위대가 “나토는 침략자”라며 나토를 반대하는 내각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에서는 2천명의 시위대가 “나토의 방자한 반도 개입은 범죄”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충돌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탈리아 밀라노와 로마에서도 2천명의 시위대가 반(反)나토 시위에 나섰다. 키프로 수도 니코시아에서는 1천여명이 공습에 항의해 키프로 주재 미대사관에 달걀과 물 세례를 퍼부었으며 성조기를 불태웠다.

중국·러시아, 나토 공습 강력 반대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군에 의한 발칸사태의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유고연방에 대한 공습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코소보 문제는 유고의 내정이기 때문에 각 당사국 측에 의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각

국은 유고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 외무장관 이고르 이바노프는 “유고공습의 진실된 목표는 세계의 운명이 미국에 의해 결정된다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나토는 신식민주의의 전행이며, 유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세계를 새로운 형태의 신식민주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언론, 나토공습 비판
중국의 양광민보는 “중국인민은 나토의 방자한 전쟁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중국정부는 나토에 대한 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강력한 우방인 일본의 신문들마저 나토공습에 대한 비판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3일자 사설에서 “미국 독주의 국제체제의 결함이 유고 사태를 계기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무도 효과는 공습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발발 전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주간지 위켄드 오스트레일리언도 “나토가 적대국에게 어떻게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답해야 하며 이같은 중국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없는 공습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학술부



한내 여론화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나토의 유고공습에 대해 서방언론들이 편파적으로 나토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고를 공방하는 학생으로서 이 사태의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 나토 군사력의 90% 이상이 미국의 병력이라는 것만 보아도 나토가 미국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발칸반도를 거점으로 세력권을 확장하고 전쟁을 통해 수입을 올리려는 미국의 의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왜곡된 보도에 가려져서 사람들이 사태의 본질을 잘 모르고있는 것 같다.

한내보기-한내 여론작업 팀원 유고어과 학생회장 나우민(동구·유고어 3)군

“공습만으론 코소보사태 해결할 수 없다”

나토의 유고공습과 관련 유고어과 학생회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미국과 나토는 공습만으로는 민족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발칸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각 유고연방에 대한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는 코소보가 세르비아의 영토임을 인식하고 코소보에서의 알바니아인의 독립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동시에 유고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은 코소보 내에서의 인종청소를 즉각 중단하고 알바니아인들의 합법적인 코소보거주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유럽의 이해당사자들끼리 평화협상에서 상당한 자제로 머리를 맞대고 발칸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

실제로 베오그라드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학생들도 모두 돌아왔고 수업시간에도 이번 공습과 관련하여 자주 토론을 하고 있다. 그만큼 파부에 외왕은 문제가 학생들이 모두 관심이 많고 워낙 문제가 복잡해 다소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이번 활동의 의의를 찾는다면

자유로운 토론문화가 부재한 차에 유고어과를 기점으로 한내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었고 과학생들을 통한 학술적, 시사적인 안목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알간지에 나토의 유고공습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도 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서윤 기자

미국주도 나토(NATO)의 유고공습 특집

한국경제를 선도하다
현대증권

한국경제를 선도하다
현대증권
www.stockmarket.co.kr



한국경제 재도약의 리더, 현대증권

제1회 ‘BUY KOREA’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생 논문 공모

한국경제 재도약을 이끌어가는 범국민 펀드, BUY KOREA 펀드가 판매 28일만에 2조를 돌파하였습니다. 현대증권이 이를 기념하고자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대학생 여러분의 창의력 넘치는 논문을 공모합니다. 한국경제를 혁신하는 젊은 지성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논문주제(핵심)

-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펀드(간접)투자의 이해와 전략
- 한국경제 회복과성장(조) 2000년도를 전후의 역학과 과제
- 일제시대 일제의 공산(CM)을 통한 수입증대 해방방안

■ 대상 : 전국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석사과정) 학생(대학 3학년 현재)

■ 공모기간 : 4월 15일까지(단순, 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

■ 시상내역

구분	1등	2등	3등
대안	1명	2명	3명
금	100만원	50만원	30만원
학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장	100만원	50만원	30만원

※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 4월 말에 한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 공모기간 : 4월 15 - 30 (3월 30일까지)

■ 공모방법 : 현대증권 본사 및 전국 지점(문의: 후원전화: 02-3700-1111)

■ 문의처 : 현대증권 본사 (02-3700-1111) / www.stockmarket.co.kr

■ 후원기관 : 한국경제 재도약의 리더, 현대증권

■ 후원인사 : 현대증권 대표이사 최정호

■ 후원인사 : 현대증권 대표이사 최정호

▶ 나보기 - 교환학생 르네 클라보노씨를 만나

“사람냄새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

서울배움터의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다섯 시,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연습에 열중한 풍물패원들 사이로 큰 덩치에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이 눈에 띈다. 가끔 장단에 불리고 장구를 치는 손놀림도 영 어색하지만 사뭇 일관된 진지한 표정인 그는 독일인 르네 클라보노(Rene Klawohn, 27)씨다.

원래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동아시아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전공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교환학생으로 온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가장 친한 친구가 한국인이라 그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독일에서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가끔 열리는 ‘한국 문화의 밤’에 참여하거나 한인교회에서 삼년간 풍물을 배우기도 했었다”라며 “함께 어울려 치는 풍물은 흥겨운 속에 ‘절속력’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풍성을 담고 있는 듯 하다”고 풍물패 활동의 소감을 전한다.

실제로 그는 독일인과 학생들과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끼리 볼려나니 다른 교환학생들과는 달리 ‘친구를 많이 사귀고 있어서’ 독일인과 과방으로 직접 찾았다고 한다. 이들은 독일어와 학생들에게 편한 ‘영, 오빠’ 같은 존댓가 된 클라보노씨는 얼마 전에는 그 연애편지까지 풍물 공연을 하기도 했었다. 풍물 외에 대중가요나

뮤지컬에도 관심을 보이는 그는 한달 동안 산 대중가요 테이프가 40개가 넘고 얼마 전에는 “풍물 공연을 위해 민복을 입고 더치 케이에 익숙한 클라보노 학생들에게 한턱 쓰기도 한다. 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러가지 문화적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 한다.

클라보노씨가 보는 한국 대학생들은 “과나 몰라리 두리로 잘 뛰고 우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진한다. 대부분 아프리카트를 하고 과방도 모임 갖는 일이 거의 없는 독일 대학생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9월이 되면 클라보노씨는 다시 독일로 돌아

가 공부를 계속한다. 더 머뭇고 싶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한다. 중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가 볼 생각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일해 보고 싶다고 진한다. “남은 5개월 동안 많은 꼭 한국 친구들을 사

귀고 싶다. 한국에서 가장 얻어가고 싶은게 이것이다.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는 클라보노씨의 모습에서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느껴진다.

정서를 기자



생활 시평

통일 축구

또, 국민들은 축구경기가 끝나자 심판을 했다.

나이지리아에서 현재 진행중인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우리측 선수들이 지난 7일(수)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소 패하면서 16강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져서 우리 국민들은 쓸쓸함을 맛보아야 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또 다른 축구경기에 관한 소식이 있었다. 대표선수라고 할 것도 없고, 그 어느 편이 이기는 지든 상관없이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 가슴 흥분한 축구대회, 남북동자축구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달 베이징에서는 민노총의 이규재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회의위원장, 조준호 금속산업연맹 전수석부위원장과 북한측의 리진주 조선직업총동맹부위원장인 남북동자축구대회 개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이 있었다.

노동자단체가 막대한 책상과 의자들을 단번에 치워버리고 맨 바닥에 통풍기 틀어놓고 서로 부딪쳐 안기 시작했다.

비록 제 3의 나라 베이징에서지만 이렇게라도 만난 것이 너무 반갑다고 그 거친 손등으로 흐르는 땀을 서로 닦아주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북 동자들에게 리 하는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

다. 그리고 나서 북한측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베이징 대표부를 통해 렉시밀리로 민노총에 초청장을 보냈으며 한재 민노총의 두 간부를 역시 남북한노동자대회 개최확정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방문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남북분단이후, 아니 사상처음 이뤄지는 남북한간의 축구대회, 그것도 생산수단을 소유한 각 제제는 다르지만 그 제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노동자간의 축구경기가 갖는 의미는 크다. 바로 남북한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그 동안 관주도의 모든 교류, 협력방식으로부터 민간인들간의 친선교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통일원력의지가 표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도 꾸준히 준비해오던 자부심운동에 박차를 가해왔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의 참돛된 정책에 의한 서로의 단절된 과감들을 우리 민간인들이 자주 오가며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외에는 경영자와대의와 의도결집을 꼭 해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학교가 북한 경영자와대의와 학술교류, 문화교류 등의 친선관계를 맺어 한반도통일에 이바지했으면 한다.

문화부장

▶ 총회재 -학내 코카콜라 발매 운동

학생들은 봉이 아니다



“어느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요즘 용인배움터 각 건물에는 한 칸이 100원씩 받는 무인 커피판매대가 놓여져 있다. 학생들이 직접 커피를 타서 하고 마시던 용에 돈을 넣을 수 있

게 만든 이 판매대는 자리가 계약업체인 코카콜라의 홍보에 맞서 생활필수품(생활) 학생위원회의 ‘자립기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발고 있는 사업이다.

97년 자립기 계약을 할 때 당시 계약업체인 두산 음료는 일반판매 100원, 고급커피 150원에 들어왔다. 그 후, IMF로 인해 한올이 오르자 두산측은 각각 50원씩 가격인상을 단행했었다. 문제는 한올이 다시 1200원으로 내려갔는데도 한 계약업체인 코카콜라사(98년 두산음료 매입)가 가격인하를 거부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올을 받들도록 현재 코카콜라사는 한 잔당 50원씩, 한 달이면 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 생활 학생위원장은 신용선(총무·리더) 4군의 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커피 무인 판매대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직접 타 먹어야 하는 게 조금은 불편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이라 생각한다”라는 조종이(서학·봉이 4월)나 “자립기 커피보다 훨씬 맛있고 위생적인 것 같다”는 신윤인(자연·물리 2)군처럼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들이다. 실제로 하루에 1600잔 정도의 커피가 이 판매대를 통해 팔리

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 학생위원회의 생와자, 녹차 등의 전통차도 팔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돈을 내지 않고 마시는 학생들이 있어 다음 물량을 구입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올해 6월이면 코카 콜라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이다. 다음 일할 업체는 4월 말에 있을 생활 대의원 총회에서 여러가지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학생위원회의 측은 “이번 상황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서 재계약에는 생활 직원 자판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진한다.

배움터 내에서의 코카 콜라 불매운동은 이제 오늘을 넘어 내일이다. 실제로 97년도에 코카 콜라를 입찰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으나 두산으로 예가 있다. 일할 심사가 있을 때까지 생활 학생위원회의 불매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학생들의 작은 참여가 생활 속에서의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신용선군의 말은 어느때보다 학생들의 주인인 자세가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정서를 기자



(3) 영화로 읽는 덴마크 문학 - 바벳의 만찬(Babet's Feast)

음식을 통한 삶의 부활

영화 ‘바벳의 만찬’은 1988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20여개 영화제에서도 다양한 상들을 수상했다. 다양한 수상 원인을 추론해 본다면 끝없이 절제된 영상미학과 19세기 중반 덴마크인의 문화를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로 승화시킨 데 있는 듯하다. 영화는 문화의 복잡함이기 때문에 외국 영화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더욱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외에는 분석을 위해 이 영화의 주제와 줄거리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한다.

이 영화의 주제와 줄거리는 진부하지만 감동적이다. 루터교 목사의 딸 마르타와 리리파는 캐리시미적인 권위를 갖고있는 아버지와 뜻에 세속적인 딸과 부 그리고 사랑을 버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1871년 프랑스의 정치 혼란기에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린 바벳은 리리파를 연모했지만 사람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파리로 떠

난 파리 오페라 가수 파랭의 소개로 덴마크 서부 해안에 살고 있는 노르네 자매 집에서 두달 거장부인 겸 집사직을 찾는다. 화면의 색채감이나 우아하고 정제된 이 마을에 세속적인 삶의 활기가 충만한 바벳의 마을 사람들에게 활력소가 된다. 작고한 목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 바벳의 두 자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경비를 만전을 바랄 수 있도록 두 자매의 허가를 받는다. 바벳은 자신을 프랑스의 유망하게 연결해 주거나 또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큰 돈이지만 도덕적으로 허자가 되는 돈 - 복권 당첨을 통해 얻은 돈 - 만 프로그램을 초대된 손님 12명에게 대접할 최고급 프랑스 요리를 마련하는데 모두 사용한다.

신을 찬양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남을 바빔하는데 쓰일 수도 있는 입을 ‘사치스런’ 음식으로 즐기기 하는 것은 타락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심 깊은 바를 사람들은 바벳의 행동을 매우 무리하게 여긴다. 마치 뜻에 요리를 먹기만 바를 사람들은 예제 세속

적인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다. 마르타를 연모하였지만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였으며, 가식적인 종교적 수식어를 통해 세속적인 출세를 한 로렌트 장군은 이 만찬에 초대된다.

당시 문화의 최첨단이었었던 프랑스 파리에 서 장교 생활을 한 커피는 어느 로렌트 장군은 바벳이 준비한 음식에 -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 끊임없이 경탄과 찬사를 보낸다. 12명이 초대된 마을 사람들은 로렌트 장군을 통해 바벳이 만든 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비”와 정성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게된다. 바벳의 만찬을 먹으면서 바를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인해 얼마나 종교인으로서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지 반성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한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과 작고한 목사가 추구하던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이었다.

조관연

(문화인류학 강사)

풍채이화마

시작

고분벽화 본 고구려 이야기



사상기행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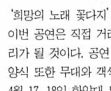
고구려는 어떤 나라였을까?

고구려 사람들의 신화 대상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을까? 이 책은 고분 벽화 사적으로 고구려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부는 종교, 2부는 고구려 역사와 삶의 전반, 3부는 고구려인의 삶의 모습을 재조명 해 보면서 만주를 주류화했던 강인한 고구려의 기상을 느끼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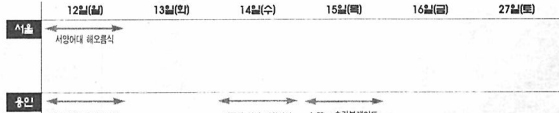
알을했던 7, 80년대 청년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시인 김지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책은 84년부터 계간지를 통해 꾸준히 준비해 오던 김지하 사상의 원시이다. 한만도를 넘겨서 해방된 ‘생명의 숲’을 주창한 김지하의 복잡 다양한 내면의 세계가 책 전부를 통해 녹아나 있다. 1부는 ‘민중사상의 뿌리를 찾아서’ 2부는 ‘신 인류를 꿈꾸며’로 나누어져 각각 탐방기와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99 노래판 꽃지



학내 문화행사 일정표



후 복 관					
구분	종목	석식	복음	달법/양식	타류
월 (12일)	유기대장군 (W1,400)	북이추장군 (W1,400)	카레밥 (W1,400)	함박스테이크 (W2,300)	떡만두국 (W1,800)
화 (13일)	아름다시미국 (W1,400)	순두부찌개 (W1,400)	감자떡볶이 (W1,400)	튀김스테이크 (W2,300)	장국밥 (W1,800)
수 (14일)	소고기국수 (W1,400)	비빔밥 (W1,400)	종이요리떡볶이 (W1,400)	쇠고기떡볶이 (W2,300)	유기대장군 (W1,800)
목 (15일)	무엇이든 (W1,400)	호박만두찌개 (W1,400)	돈육김치떡볶이 (W1,400)	불고기떡볶이 (W2,300)	생선탕 (W1,800)
금 (16일)	냉이떡볶이 (W1,400)	감자떡볶이 (W1,400)	쇠고기떡볶이 (W1,400)	통나물떡볶이 (W1,500)	닭강정 (W1,800)

※ 사상기행 1번 서울배움터 식단은 신지 못했습니다.

일본문화 개방, 가면을 벗겨라



〈3〉인들을 통해 본 문화의 맥락

90년, 전격적인 일본문화 개방이 시작됐다. 개방이나 반대나 논쟁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인 것이다. 이에 지난 학기 본보에서는 '문화 산업화 논리'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4회에 걸쳐 연재했다. 그렇다면 문화 개방의 이면에 깔린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성있는 민족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방편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하도록 하자.

한정식

한글 사랑을

'폐쇄적 민족주의'로 둔갑시키다

'무식함'의 한글의 수난

우리 말과 글에 대해 최형단의 주장이 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 국어인 영어와 민족어인 조선어 가운데 자신들의 삶에 나은 것을 모국어로 고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소설가 도정일의 말이다. 구대리의 주장도 소거하자. '폐쇄적인 민족주의'라는 비아냥 하며 국제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한글을 한글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글안내문'으로 부족하다. (영어는 있지만 한자문화권의 관광자를 위해) 한자안내문을 두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과 문화에 대해 '항 식견'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말이다. 말과 글은 한 나라 문화의 바탕이다. 한쪽에 서는 '영어인국'을 할 이야기 하고 또 한쪽에 서는 '한자문화'를 할 이야기 하는 상황은 우리 문화의 현주소가 얼마나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해 한글날은 아니지만 한글의 고유한 역사를 통해 우리 문화를 현주소를 살펴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를 한글이 길어온 길

한글은 만들어진지 100년째 우리의 온갖 반대와 압박을 받았다. 물론 대신 한글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지식을 습득하게 되니 일반과 상층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일반들의 기록권 유지책은 결과적으로 한글이 민중 속에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환경을 만들었다. 지배층이 만들어 놓고 지배층이 외면한 채 태어난 미운 오리새끼가 바로 우리의 한글이었다.

온통 한글이 지배한 시대, 연산군이 한글을 금했는데도 한글이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다. 지식인이 아닌 '무식한' 여신, 농민, 노비들이 실제 생활에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 사용하면서 구어가 됐기 때문이다. 이 '무식한 한글'이 민중들 사이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일부 양반들이 노예국가로 사용하면서 약 300년의 세월이 흐르자, 조선 후기에는 한글을 사용한 문화·예술작품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실용한글'이 바로바로 '문화한글'의 수준으로 발전했다. 한자문화에 지친 지식인이 아니라 노동하는 민중들이 지키고 구가어 온 글! 그게 바로 한글이다.

조후훈씨는 한글을 기반으로 한 귀족문화와 한글을 기반으로 한 민중문화가 서로 다른 미래를 추구하면서 대립하고 있었다. 한글을 통해 민중들은 양반사회의 허구를 폭로하고 세

로운 사회를 꿈꾸었다. 마치 중세말 프랑스에서 귀족문화와 시민문화가 서로 대항하던 한자(양반)문화와 한글(민중)문화는 서로 대항하거나 서로 공존하면서 민족문화의 역사적 바탕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문화의 형성과정은 프랑스의 그것과 매우 달랐다. 프랑스의 경우 시민혁명이 승리하면서 시민 문화는 시민적 가치를 기반으로 귀족문화까지 흡수하면서 근대 프랑스 민족문화를 마련하였다. 이런바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풍부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근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한글문화는 아직 민중들의 성장이 미약하여 중세 한자문화에 해체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했다. 대항제국 시기를 전후해 국한문혼용체가 일반화되고 한글로 된 독립신문이 나오면서 점차 중세문화는 사라지고 새로운 시민문화와 함께 언론인지와 중세 한글의 근대화정도의 전환이라는 역사의 방향은 예고되는 듯했다. 그러나...

양반문화의 구체적 '일본'

일본제국주의가 이방을 지배하면서 양반문화는 일제 당국의 식민지 노예정책의 일환으로 변형, 수용되어 봉건적 잔재를 잔존한 채 온존되었다. 반대로 한글문화는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나타나 듯 민족말살정책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일제 말기에는 '국민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따위를 나누어 주고 어린이들 사이에 한글을 쓰면 서로 작별하듯 따위를 빼앗게 하고 부모들이 조선어를 쓰면 자녀를 못하게 하는 등 우리말과 글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네 말과 글을 본격적인 근대 언어로 바꾸는 동안 우리의 한글은 고착한 한자문화로 자리려는 유학자들과 일본어에 의해 퇴출당하고 있었다. 미운 오리새끼 이제는 자기 집에서 쫓겨난 것이다.

한편, 해방 후 남북한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정부 모두 한글을 우리의 공식 글로 선언하였다. 미운 오리 새끼 6백만년에 백조로 전락하게 부활하는 듯 싶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폐해 속에 초래된 이 땅의 젊은이들은 화려한 미국 대중문화에 빠져 버려졌다. '하모니'에 마릴린몬로 사진이 붙어놓고 수줍음 하는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가 시작될 것이다. 이미지는 '멜로 슈 사인 보이'를 불렀고, 남장네들은 서구를 그리며 '이바는 마도로스' 노래를 불렀다. 영어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고급 사교언어로 행세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 한국전쟁이 성립하고 특히 컴퓨터 세대가 등장하면서 한자는 점차 세는 대로부터 멀어져 갔다. 특히 컴퓨터 '제법'을 통해 한글에 바탕을 둔 언론이치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학교의 고지식한 문법과 작문교육(문어체)은 한문 교육은 생동감있는 현대의 감성 표현에 방해가 되었고, 즉각적으로 묻고 답해야 하는 '제법'은 이를 특유의 살아 있는 말을 그대로 글로 풀어냈다. 일상적인 회화체가 그대로 문자로 전달되는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물론 이 세대가 사용하는 특유의 언어나 비유나 그리고 외래어의 남용과 잘못된 우리말을 올바른 말글살이에 우리가 되가 충분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한자나 영어가 아닌 한글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언어가 들고 외식이 성립하면서 이제까지 걸맞은 한글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지는 갖고 있다. 서울 대신 동이거, 보요요 대신 도우미, 신입생 대신 새내기 사용되고, 우리말글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담근이지' 이랄 한 번 썼다고 기성세대들이 지나치게 화를 입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항상 그렇듯이 한글 문제를 악화시킨 것은 언론이나 정치권 아니었다.

세계화추진로 또다시 내몰린 한글

김영삼정권은 국제화·개방화를 외치며 영어와 컴퓨터만이 살길이라고 목놓아 외쳤다. 그 결과 영어 조기교육 열풍이 벌어지면서 강남의 유치원생들 가운데 영어를 가르치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고등학생들이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는 방송퀴즈 프로그램까지 마련되고, 신문에는 영어의 영어가 실리면서 심대하게 외국어를 쓰는 것만 믿는 게 자라는 것이다. 김영삼 '문민(文民)' 정권의 말글살이 정책은 영어

의 토착화가 아니고 무엇이었다.

문민정부의 영리한 맞수 국민의 정부가 어찌 이에 뒤처졌는가. 영어는 이제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으니 동아시아적 국제화를 위해 한자로 집어넣고 화를 입을 만다. 일본의 고부라 외상이 한국에서의 한자용 정책은 일본식 한자 표기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여기에 한문과 일본어에 익숙한 노인 정치권들과 조선일보가 전통 문화의 보고인 한문고전을 읽기 위해 한자를 배우고자 맞붙을 지른다. 한심하다. 그 한자는 한글도 2.3백만년 거슬러 올라가면 일반인들은 읽기 어려운 판에 사자삼경이나 중국 옛 역사를 줄줄이 깨어날 일을 수 있는 한문고전 때문에 한자를 배우는구나! 쉽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니 토사구팽이나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땅의 정치권들을 볼 때 한자용정책은 반드시 추진될 것이다. 해방 후 우리말과 글의 현대화와 정제화조차 확보되지 못한 채 일제시대의 일본어다 영어가 들어 섞여지고 여기에 다시 한자까지 부활되는 20세기 말의 문화적 경관을 어찌할 것인가.

박한용

(한국문학연구소 상임연구원)

1.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둘러싼 논의를 두고 생각해 본다
2.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실태
3. 한글을 통해 본 문화정책의 의도
4. 대안 - 개성있는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문화 단신

서울, 동대리한미당 열려

'동대리, 동대리에 의한, 동대리를 위한'이라는 가치를 가진 '99 동대리 한미당'이 지난 8일(화)부터 8일(목)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분과별 전문성을 강화해 각 분과별 마당으로 꾸며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분과는 '선교와 인터넷'에 대한 강연을, 봉사분과는 '장애체험' 사회과학분과는 '동강을 살리기'와 '여성의 권리찾기'를 주제로 토론회와 강연회를 각각 진행했다. 그 중, 장애인행사는 '웃길게 높이뜨기' 대회 가 진행되었다.

웅인, 순발사랑회 이틀첫집

수화 동어리 '순발 사랑회'의 이틀첫집 행사 가 지난 7일과 8일(금) 양일간 학생회관 전시장에서 열렸다. 저도 마치고 수화 공연도 감상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에서는 '너를 보내며' '연중 연가' '여명의 사랑' 등의 노래를 공연했다. 또, 국민대과 경기대 수화 동어리의 찬조 공연도 있었다.

행사를 준비한 회장 김지훈(공대·제이체스 2)은, "순발 사랑회의 매 행사를 통해 장애에 대해 대한 성립정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틀첫집의 수익금은 장애아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포크 기타동아리 '외비가디'의 발표회 가

웅인, 외비가디 발표회

난 7일(수) 후북관 4층 소극장에서 있었다. 그동안 쌓아온 2학년들의 기량을 펼치고 신입생 유치를 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공연에서는 '기적' '날' '어린시절' 등의 곡들이 연 주되었다. 예전에 부르던 포크 송을 위주로 공연했던 것과 달리 팝과 락을 접목시킨 대중적인 곡들을 선곡했다고 한다.

공연은 준비한 회장 김지훈(공대·제이체스 2)은, "진행상 미숙한 점들이 많았으나 동어리의 주축인 2학년들의 나진 실력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웅인배움터 참여학생회가 주관한 '내게 이 여

웅인, 새내기여학생 모포지

학생 모포지 가 지난 10일(토)부터 11일(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화인 리조트에서 진행됐다. 15여명의 각과 새내기 여학생이 참여한 이번 모포지에서는 스승여학생의 소모임(여생분, 여생문제, 타이어)에 대한 소개 및 각 소모임이 주제를 마련한 분임토론(연애, 이름, 다른 사람)을 통한 가치관 확립, 토론(성적, 사회)에서 참여자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와관련 참여학생회장 안은성(사학·영어 4)은 "이번 모포지의 취지는 여학생들이 성 차별의 틀을 깨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외국어! 이제 교내에서 해결하세요.

외국어연수평가원이 도와드립니다.

○ '99학년도부터 '외국어연수평가원 평가부'에서 7개 외국어(영·불·독·러·서·중·일)능력검정시험(12월30일 실시) 일정수준의 등급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앞으로 '졸업시험대제'와 '실용외국어학점 인정 추진'!

○ 희망자는 점수와 등급을 성적증명서에 등재하여 발급받고, 외국어 능력을 학교가 보증합니다(취업시 유리)

○ 7개의외국어(영·불·독·러·서·중·일)능력검정시험에 대비하고 재학생의 외국어실력향상을 위한 연수생 모집!

교통비와 시간이 절약됩니다.
재학생은 수강료를 대폭 할인에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여러분의 외국어능력 평가와 연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어연수평가원

1. 각 언어별 능력테스트를 거쳐 단계별로 편성함을 하여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
2. 자연스럽고 능숙한 외국어능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 및 다양한 업무환경에 따른 적합한 대화능력을 기른다.
3. 원어민이 직접 강파하고 평가과정은 정확한 발음 및 발음법칙을 익힘으로써 청취력을 향상시킨다.

20주 정규 주·야간교육

외국어연수평가원의 20주 정규 주·야간과정은 정부 행정직무 공무원들의 위촉교육 및 지방공무원교육원, 일반 기업체 임직원, 해외유학을 앞둔 일반인들의 외국어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하기는 대 목적을 둔 강도 높은(Intensive)교육과정입니다. 연간 2회 실시하며 주간과정은 09:00~16:50, 1일 7시간(약700시간), 야간과정은 18:30~21:20, 1일 3시간(약300시간),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수업이 진행됩니다. 학급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10주 일반인·대학생교육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말하기, 듣기를 위주한 생활회화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연간 4회 실시되는 10주 일반인·대학생과정은 일, 화, 목, 금, 수요일수업에 하루 2시간씩 교육하며(약80시간), 일반인과정은 19:30~21:20까지, 대학생과정은 17:30~19:20, 학급원은 15명이내로 구성됩니다.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어학강사와외국어시험기출문제집(대통령령 제6836호, '76.4.22)에 의거, 해외로 파견되는 훈련생, 전문가 및 유학생들에 대한 어학진행검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부 및 정부관계부처, 일반기업체 등의 외국어진행검정으로 위촉되어 본교에 개설화한 2개 외국어 '이해능력평가'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9~2000년도 외국어연수평가원 일정표

정규 주·야간과정 20주					
학기	구분	개강	중강	원서모집 및 접수	반편성시점
1999년 하반기					
주간 제4기	아간 제5기	'99.8.2(월)	'99.12.17(금)	'99.5.17~6.4	'99.6.18(토)
2000년 상반기					
주간 제4기	아간 제5기	2000.2.7(월)	2000.6.23(금)	'99.11.8~11.26	'99.12.18(토)
일반인·대학생과정 10주					
학기	구분	개강	중강	원서모집 및 접수	반편성시점
1999년 하반기					
제3기	제4기	'99.8.2(월)	'99.10.8(금)	'99.6.28~7.16	'99.7.24(토)
		'99.10.11(월)	'99.12.17(금)	'99.8.30~9.17	'99.9.18(토)
2000년 상반기					
제4기	제4기	2000.2.7(월)	2000.4.14(금)	2000.1.3~1.28	200.1.22(토)
제4기	제4기	2000.4.17(월)	2000.6.23(금)	2000.3.13~4.7	200.4.8(토)

외 국 어 연 수 평 가 원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외국어연수평가원
☎ : 연수부 961-4174/5, 962-7118, FAX : 962-0575
평가부 961-4184, FAX : 962-7123

전대기련 설문조사 - 대학생 1천1백74명이 바라본 김대중 정부 1년

꿈으로 끝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

정치·경제 일부 제외 교육·사회/인권·외교 등 대부분 낙제 수준
학부제시행, 한총련탈퇴 종용, 교육부장관 편지 모조리 '퇴짜'

사회발전에 대해 가장 진취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대학인들은 50년간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먼저 대학인들끼리 가장 피부로 느끼는 교육 분야는 47개 질문 모두에서 평균이상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학부제, 교육부 입장 변화없어 불만 가중될 듯

가장 합당한 점수를 받은 것은 학부제. 응답자 중 74%가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거나 문제가 많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반대여론이 비등했음에도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각 대학이 거의 강행하듯이 시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대학제도과 이계영 과장은 "교육부의 기본방針은 학부제 시행이다. 일부 우려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결정할 사안이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학생들의 고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과의 마찰 또한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교육개방에 대해서도 반대



(54.6%)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노동자들과 시각차

경제 분야에서는 민주노총이 지난 2월 탈퇴한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71.9%가 노동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으며 청년실업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이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의 경제회생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다소 회색지대라는 의견이 35.7%로 비교적 많은 의견을 차지했다. 또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정리해고, 근로자경제 등 소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회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43.4%)가 '대량 실업 양산, 고용불안 가중 등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3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노동계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와 심한 충돌을 한 것과는 일면 대비되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김태원 기획국장은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되었다는 표면적 현상을 보고 판단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근본적 모순을 바로 본다면 현재의 상황을 일시적 고통이 아닌 '고신업의 장기화' 현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총련 탈퇴 여부 "당사자에게 맡겨라"

사회/인권 분야는 '인권 대통령'을 지칭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이 무래할 만큼 낙제 점수를 받았다. 국보법 철폐, 양성수 전원석방, 안기부(국정청) 해체 등 시민민주화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말로 시험이 정해진 한총련 탈퇴 문제에 대해 대학인 스스로 결정할 일

이라는 의견이 67.1%라는 다수가 동의했다. 이는 얼마 남지 않은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정부가 작년과 같이 원전분배와 진전연행이라는 강경한 탄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학생운동을 삼키고 한총련 산배를 조신하라"는 내용을 담은 새내기에게 발송해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이혜찬 교육부장관의 편지는 '정당한 자치활동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단문이 65.9%를 차지해 대학인들의 반목거리가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정책 문화 가운데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았던 분야는 정치분야였다. '안정적 정국 운영을 위한 정책개선'에 대해 27.2%가 지지해 반대여론(25.6%)을 약간 앞지른 것이다. 그러나 그 지지 근거는 반응이 45.4%를 차지해 최근 보궐선거 투표율이 보여주듯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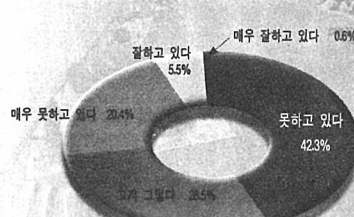
햇볕정책, 통일정책으로 변모할 것 요구

지난해는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면서 김영삼 정권 시절 관계 단절된 남북 교류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햇볕론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햇볕론이 통일에 미친 영향을 묻자 다소 큰 영향을 끼쳤다는 22.7%에 그쳤지만 그 지지 근거는 40.2%가 이를 영향없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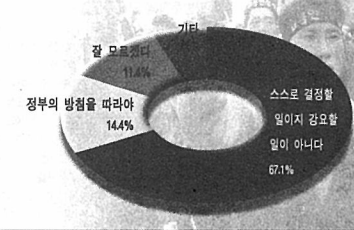
그 이유를 묻자 "햇볕론을 내놓고 북한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북한과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통일은커녕 없어 답답하다"는 두가지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햇볕론이 남한민의 '대북정책'이 아닌 명실상부한 '통일정책'으로 변모해야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설득력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민간인 박병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란 전대기련의 방북취재를 비롯한

청년예비실업자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평가



3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전원구속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청년학생들의 교류만이 아니라 한총련 탈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65.6%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잘못됐다는 의견이 20.7%를 차지해 자치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자신있는 분야 중의 하나라고 자부했던 외교 역시 절반 이하의 지지를 받았다.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68.1%가 반대였고 반면에 발생하고 있는 미군범죄에 대해 주관국으로서 대처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개정 요구도 76.7%를 차지했다. 김대중정부가 시행한 문화정책 중 가장 큰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일본대중문화 개방. 찬성이 42.0%를 차지해 반대(27.9%)와 그 지지(29.1%)는 반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개방에 대비하는 민족문화 육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잘못하고 있다(34.1%)는 평가가 우위를 차지해 대안부재의 현실을 꼬집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포부는 아직까지도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그 중에서도 교육정책, 사회민주화 등 대학인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는 분노에 가까운 의견이 표출되었다. 실업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이 한판대결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상기한다면 대학인들도 결코 그 반열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우리학교 한총련 대의원 불발명 선언

우리학교 한총련 대의원들이 정권의 한총련 탈퇴강요를 거부하고 7기 한총련 대의원직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선언은 정부가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3월 31일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수배,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탈퇴시한을 넘긴 지난 주에 발표되었다.

한총련 대의원 불발명을 선언한 우리학교 한총련 대의원은 서울배움터 반대 학생회장 김현식(법·법학 3),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신동현(통·통학 4), 용인배움터 동아리 회장 학대 학생회장 박대리(통·통학 3), 용인배움터 공과대학 학생회장 배현석(공대·정보통신 4),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안은성(사·학·영 4)으로 모두 4명이다.

이들은 김대중정권의 한총련 대의원 탈퇴강요가 집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00만 대학생들의 합법적인 직업선거를 통해 뽑힌 학생대표자들로 구성된 한총련 대의원회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총련 방북대표 황선양 공판 열려

지난 8일(화) 서초법원에서 6기 한총련 방북대표 황선양(대성여대 국문과 4학년)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황선양의 죄목 중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잠입, 탈출을 한 행위, 무기 또는 탄약의 징역에 처해져야 한다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2항과 관련 황선양의 진술이 있었다.

황선양은 이날 "북한의 대학생들과의 순수한 교류를 위한 다양한 대중적인 통일운동의 흐름을 함양할 이유만이 기로막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함정으로부터 내몰고 있는 것이 진정한 누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지령을 내리는 것은 몇몇 특정인의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방사적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철천질한 계류의 모습이고 민족의 역사이며 청년의 양상이다"라고 진술했다.

황선양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목) 오전 10시 서초법원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4대요구 실현위한

투쟁계획발표

지난 8일(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대요구 실현을 위한 대정부 교섭 촉구 및 투쟁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나라경제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 경제개혁의 책임자인 재벌과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여러차례 요구하면서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체협약 안정과 산업별 교섭체제 보장 등 4대요구를 제시하고 정부와의 직접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거듭 촉구해왔다.

연합뉴스 증권기자와
권위있는 집필진이 제작한
“기자 지망생”을 위한 안내 길잡이 참고서

- STYLE BOOK -

기사작성 길잡이

주요내용

- 기사문장 작성과 종류별 구성법
- 일선 부처와 기사 유형별 분류와 예문
- 취재기법·취재원 및 보도자료 처리와 자료활용법
-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법 및 디지털 카메라 전송법
- 기자가 알아야 할 법조문과 기사처리 방법
- 자료집(언론관련법률, 한글맞춤법 및 기사 숙지사항 등)

구입문의: 연합뉴스 출판국

- 전화: 398-3590~2 ※ 대학별 판매담당 아르바이트 모집합니다.
- 정가: 20,000원
- 판형: B6판(4·6판) 비닐표지(포켓북스타일)



여행을 보내준다구??

「외대교지」에서 제44호에 실린 「여행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행계획서를 가져오시면 여행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외대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서울 학생회관 211호 02) 691-4409 용인 학생회관 304호 0335)330-4167

서울은 사대 진보의 고향입니다
「외대교지」 편집위원회



사진은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관련 기자회견 장면이다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기자회견 보도

"민중들과 함께 투쟁 결의하는 장이 될것입니다"

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임시의장: 윤기진 명지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8일(목) 서울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8일(금)부터 18일(일)까지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총련' 임시의장 윤기진(명지대 총학생회장)은 "민중민주운동체제들과의 연대를 통해 대의원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신승현 연세대 문과대 학생회장은 12기 사총련의 한총련 불탈퇴 선언문을 낭독하고 지난 7일까지 사총련 전체 1만8000명의 대의원 중 97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서명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총련에서는 대의원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는 12일(월)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서총련) 전국총일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관운대 총학생회장은 선언문에서 "정부는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더 이상 한총련을 위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말라"고 요구하며 "이번 대의원대회는 IMF로 인한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등으로 어느때보다 민중들의 분노가 드높은 지금, 이러한 사회를 변화하는 것이 대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장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7기 한총련 임시의장 윤기진

또 장진숙 홍익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홍익대에서 열기로 결의했다"

전대기원 서부지구 공동기자단

"한총련은 정당하다"

최근 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대회(대의원)를 앞두고 '한총련은 정당하다' 대의원대회 취지를 보강하기 위한 '한총련'이 각계각층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에 내린 '한총련' 이적단체 적용불가 판결은 위와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 더욱 많은 단체들이 '한총련' 대의원대회 취지를 보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단체인 민주주의민중동맹연(민주노총), 한총련학부모협의회(한학협) 등 각 단체가 '한총련'과 관련된 '한총련' 이적단체 적용불가 판결을 보도하고 있다.

한총련의 기본권 보장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중공대위) 또한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 이적단체 적용불가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만약 정부가 한총련 대의원대회 개최를 강요할 경우 강력한 정부 규탄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표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로 '한총련의 정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한총련'과 관련된 최근 일고있는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서울지역단체 공동성명 발표

"한총련 탄압은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희망은 민중을 절망하게 기만하였고 민중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짓밟아버렸습니다. 정권교체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 농기부에서 시달려 자신들의 삶을 돌리고 고향을 떠나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 굴욕적 사대매달려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한총련은 어떤 자세를 보여줄 것인가? 이것은 한총련이 본디 정의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닌 권력에 근거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총련은 이러한 선배세대의 유산적인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구성원 백만학우들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인 것입니다.

한총련에 대하여 정권과 공안당국이 김영삼 정권과 동일하게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자기 조직의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을 결집하는 지리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것은 결코 부당한 처사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100만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고 역사적 애국정신을 지니고 있는 민주적 결사체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정치 사상 학문의 자유 등 민중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인권탄압 사비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보안수사대, 공안대책위원회와 같은 공안기구를 즉각 해체해야 하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폐하고 대의원들에 대한 정치수배를 풀 것이며, 평화적인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리해고 철폐와 민중생존권 쟁취 및 IMF 대응을 위한 서울지역 대책위원회(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주의민중동맹서울연합, 전노선 서울지회협의회, 전국학생연맹,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한총련 무죄판결, 애국애족의 계거

한총련 무죄판결은 공안당국이 철폐를 내린 형사에 길이 남을 애국애족의 계거다. '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며, 이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전지방법원4부 합의의 형사에 길이 남을 애국적인 판결을 열렬히 환영한다.

이 판결로 공안당국의 한총련 탄압이 야만적인 마녀사냥이었던 것이 명백해졌다. 당국은 그동안 한총련 탄압에 대해 사회과일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4.19혁명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선구자이며 정권 교체의 주역이다. 정권이 이들의 자주적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판결

4월 6일 대전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한상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친일·친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총남대 총동맹이리연합회 등 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부분은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적단체 여부'는 조직의 성격의 내용이나 활동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며 6기 한총련 정경에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듯한 주장이 있어 다소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적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적단체 여부를 따질 때 강령이나 활동

내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알리고자 하는 주장하는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 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선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주장하는 등의 명시적인 위협성이 있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총련 대의원들을 불탈퇴한 우리학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신동현(동국·경기대)은 "이들은 한총련의 투쟁이 그동안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총련을 탄압해온 김대중을 비롯한 세력들이 비민주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총련 무죄판결, 애국애족의 계거"

한총련 무죄판결은 공안당국이 철폐를 내린 형사에 길이 남을 애국애족의 계거다. '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며, 이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전지방법원4부 합의의 형사에 길이 남을 애국적인 판결을 열렬히 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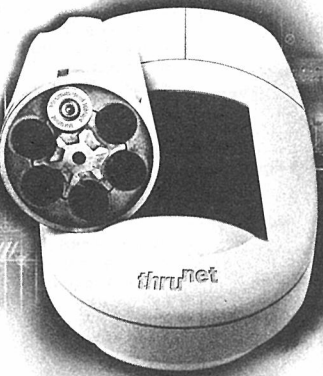
이 판결로 공안당국의 한총련 탄압이 야만적인 마녀사냥이었던 것이 명백해졌다. 당국은 그동안 한총련 탄압에 대해 사회과일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4.19혁명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선구자이며 정권 교체의 주역이다. 정권이 이들의 자주적

활동을 가로막고 나선다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100만 청년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민주적 결사체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권 개혁을 원한다면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폐하고 청년학생들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정치수배를 풀고 평화적인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홍기근 오세철 진관

"총알 인터넷"



딱 클릭하면 딱 접속! 웬만한 검색, 전송은 몇초면 끝! 다운로드 중간에 끊기는 일도 용서가 안돼 이제 인터넷의 세계에서 지루함은 DELETE야 이 굉장한 속도, 광케이블 아니면 꿈이나 꾸고겠어?

광케이블이니까 가능하다!
광케이블인터넷, 두루넷

광케이블이니까 빛나게 빠르다

다른 느린 인터넷들은 속도 못주는 속도! 광케이블 두루넷은 매달 100Mbps로 대용량 파일도 단 몇 초만에 전송!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광케이블이니까 전화비 없다

전화요금 걱정 없이 돈은 인터넷 광케이블 인터넷 두루넷은 월 80,000원 일일제로 하루종일 한달 내내 인터넷을 무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금액/기종용 서비스 기준)

광케이블이니까 진정한 멀티미디어

광케이블의 속도에서부터 가능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동영상, 음성, 사진, 텍스트, 오디오, 멀티미디어, 게임, 보이스채팅, 영상채팅 이벤트까지 실현 가능합니다

광케이블인터넷
thruNet 두루넷
가문의/신청 02-3488-8282
지역별 내선 및 서비스 지역은 두루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옥침락은 말한다 ⑥- 미국의 교육침략사 상

친일로 망한 나라 친미로 부활?

교육정책, 미국과 지배층의 통제기능을 강화해주는 역할 해 수정



교육침략은 말한다

순서

- ① 일제침략사 상
- ② 일제침략사 하
- ③ 타국의 교육침략 사례
- ④ 타국의 교육침략 사례2
- ⑤ 현대 제국주의 역사에서의 침략과정
- ⑥ 미국의 교육침략사 상
- ⑦ 미국의 교육침략사 중
- ⑧ 미국의 교육침략사 하
- ⑨ 제국주의 교육침략 총괄
- ⑩ 교육 침략은 말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이 식민지화 시키려는 나라의 민중들을 사상문화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식민지 노예교육을 지배 정책의 중요 수단 중 하나로 삼았다. 이것은 제국주의와 현대제국주의, 미국이나 일본 할 것없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변형없이 행하는 식민지 지배정책이다.

현재 한사회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의 패권적,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사실은 그간 IMF 경제실태통계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영향력 자체가 단순히 경제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침략적 영향을 보이고 있음이 여러 요인에서 보여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교육부본이다.

해방이후 한국의 현대사와 교육은 그 계를 같이 해 왔다. 미군정과 한국전쟁, 분단체제를 거치면서 민족교육을 상실해버리는 우리 민족중세의 노획은 미국과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무시되었고,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지배세력들에게서 분단 교육 구조는 정착되었다.

이해 본로는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 교육이 전 해방이후 한국의 현대사와 교육은 그 계를 같이 해 왔다. 미군정과 한국전쟁, 분단체제를 거치면서 민족교육을 상실해버리는 우리 민족중세의 노획은 미국과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무시되었고,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지배세력들에게서 분단 교육 구조는 정착되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40여년간의 전개된 한국교육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근대적 학교교육체제의 형성과 자본주의적 교육이념의 관철 과정이었다. 게다가 민족해방은 곧바로 국토분단으로 현실화되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국토분단은 민족분단으로 고정화되었으며, 교육은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남한은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식 교육체제, 즉 자본주의 교육체제를 형성하여, 밖으로는 미국식 교육체제의 이식이라는 교육의 신식민주의와 안으로는 교육을 정권의 당면과제를 삼는 정치적 예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의외에 의해 이식된 자본주의적 교육체제는 다섯 차례에 걸친 정치권력의 변화과정 속에서 계속 강력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지배되어 왔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강화로 말미암아 '대중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노력'에 내내된 공화국의 자주와 민주성이라는 이념도 국가독자본주의의 속 아래 제한됐다.

결국 한국의 교육정책은 급격한 발전의 과정과 억압적 권력구조 아래에서 미국과 지배층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조국광복과 민족자주교육 실현을 위한 자주적 노력, 이를 뒷받침은 미국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이후 무엇보다도 전국 각처에서 교육자들의 자치기구가 결성되고 일제 잔재청산과 학원의 자주적 관리를 진지하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족의 열망을 헤아려 민족주의자들의 주도하에 전국 도처에서 민족자주교육을 실시하고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운동도 활발하게 벌어졌다. 물론 당시 민족주의자들 대부분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학교라는 것이 거짓 마음 공화당에 학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도였다.

미국의 첫 공정은 1945년 9월 1일 인천에 상륙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은 리카드대위를 군정청 학무장관으로 임명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의 첫 공정은 1945년 9월 1일 인천에 상륙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은 리카드대위를 군정청 학무장관으로 임명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의 첫 공정은 1945년 9월 1일 인천에 상륙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은 리카드대위를 군정청 학무장관으로 임명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의 첫 공정은 1945년 9월 1일 인천에 상륙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은 리카드대위를 군정청 학무장관으로 임명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의 첫 공정은 1945년 9월 1일 인천에 상륙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은 리카드대위를 군정청 학무장관으로 임명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의 첫 공정은 1945년 9월 1일 인천에 상륙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은 리카드대위를 군정청 학무장관으로 임명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의 첫 공정은 1945년 9월 1일 인천에 상륙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은 리카드대위를 군정청 학무장관으로 임명한 뒤 그날부터 곧바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리카드(C. N. Ladd)대위를 군정청 초대 학무장관으로 임명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신봉자로써 수석에 나서게 되었다.

으며, 후임자들도 친미인사 및 친일파들로 채웠다. 이것은 미군정이 일본식 노예교육체제를 미국식 노예교육에 부합되도록 재편성한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시말해 미국은 식민지 교육체제를 재편성하기 위해 군정초기 미군정교과들과 미국인 관리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 교육전반을 직접 장악하게 했으며, 일제가 조작한 식민지 교육체제를 일부 존속시키면서 친미인사 및 친일파들을 앞세워 교육정책을 장악하게 했던 것이다.

친미인사 양성을 통한 사상적 지배

미국은 점령초기부터 친미교인 양성사업에 몰두했다. 그 사업이바로 반공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친공수단이자 미국식 교육이론과 교육방법을 보급하는 무대도 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 단독정부 수립 후 미국은 원조의 미명 아래 이승만정권에 대한 친미인사 양성을 체계화한 것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는 교육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1948년 12월 미국은 이승만정권과 '한미 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면서 교육·문화에 대한 원조부담에 한하여 친미인사 양성을 체계화한 것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는 교육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1948년 12월 미국은 이승만정권과 '한미 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면서 교육·문화에 대한 원조부담에 한하여 친미인사 양성을 체계화한 것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는 교육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1948년 12월 미국은 이승만정권과 '한미 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면서 교육·문화에 대한 원조부담에 한하여 친미인사 양성을 체계화한 것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는 교육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1948년 12월 미국은 이승만정권과 '한미 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면서 교육·문화에 대한 원조부담에 한하여 친미인사 양성을 체계화한 것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는 교육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1948년 12월 미국은 이승만정권과 '한미 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면서 교육·문화에 대한 원조부담에 한하여 친미인사 양성을 체계화한 것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는 교육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1948년 12월 미국은 이승만정권과 '한미 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면서 교육·문화에 대한 원조부담에 한하여 친미인사 양성을 체계화한 것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는 교육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1948년 12월 미국은 이승만정권과 '한미 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면서 교육·문화에 대한 원조부담에 한하여 친미인사 양성을 체계화한 것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는 교육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법원의 본질

○...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다"- 98년 6기 한총련 당시.

"똥이 있어, 미안해"- 지난주 대전지법. "그때두... 그간의 고초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우리 또 준비했지!" "7기 한총련 대의원 다 잡아들여..."

자료를 법원에 공판해야하는 거야...

(정)

○...이리크 공습때 미국은 축하받은 크리스마스. 코소보 공습때는 틀루루라 즐거운 부활절.

무기생전에 경제 호황 누리는 미국인. 한 예로 코소보 전쟁으로 토마코 무기회사는 3년동안 놀고 먹은 수 있게 됐는데...

한반도 전쟁때는 흑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아닐까?

(우)

○... "나는 독재자" "독재자는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다" 등 D를 비판하는 YS 발언이 연이여 들리고 있는데...

이에 못바꾸고 안꾸는 D를 우리 크로 나쁠까가 만나보았는데

(정)



"심장이 어떻게 나?" "어린 대학생들이 하는 소리는 '물기'라도 하지. YS! 계속 코메디하면 경제침몰"을 알아버릴수도 있어!"

(정)

○...D가 좀더, 결혼초기 1년만에 소박하고 깨끗한 위기에 처했기때문에 우리 크로니클사 사원을 들으면 즉, D는 도무지 부의살림을 할줄을 몰라 시집살이구들의 눈밖에 났다는 것.

특히 중요한 방직기를 못해서 술집의 뺨은 새까맣게 타고 뒷부분은 살이끼만 한단고.

바로 부유층은 경제가 활황이고 서민들은 굶는다는 얘기.

D가 좀더, 그렇게 살림살이를 못해서야 D의 YS가 좀더가 몰락이라고 해도 할말은 없지.

(정)

DJ 소박하다

비둘기철판

왕산골

알립니다

· 동양학대 수습간부를 모집합니다. 동대이었던 누구나, 동대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회실로 오세요.

(12대. 한대만 한다. 해방부대)

· 교내 특강부, 11회 하계 여학생수련회를 모집합니다. 연락처는 4133으로 해주세요.

(생협학생위원회)

· 매주 월(4시 30분), 수(5시 30분) 생협소모임이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생협. http://san.hufs.ac.kr/~coop)

감사합니다

· 부산의 동문들, 동문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동문회장)

축하합니다

· 자랑한 한총련대원인 동대장님의 생일(4월 17일)을 축하합니다.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1200동대학우들)

· 수영이, 준보, 윤희애, 외대학보 2차 수습모임에 합격한 것을 축하합니다. 꼭꼭 잘해봅시다.

(11대 해방연합)

이문벌

알립니다

· 서아과 민중가요노래를 어우러진 선배님들, 후배님들 중간고사 잘 치르세요. 삶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은 서아과 새내기들을 모집합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있습니다.

매: 매주 수요일 5시

곳: 3503

(어우러짐 어우름)

· 33대 서양어대 해오름식과 정경학생총회를 함께 만들어나갈 지용단 여러분들을 만나 보고 싶습니다. 본관 1층 서양어대실로 연락주세요. 교육: 961-4065

(서양어대)

· 사람나누기 편지축제가 열립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편엽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사랑할, 어버이께 공경할, 스승님께 공경할.

(한국외국어대학교 우체국)

· 독일어과 여러분!

· 홍보포지 사친 찾아주세요. 그리고 보물제 기획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락처는 961-4529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열심히해서 중간고사 잘 보세요.

(독일어과 학생회)

축하합니다

· 민권아! 4월 15일 생일을 축하합니다. 몸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라.

(주은누나)

· 사이더 패거리의 예쁜이 동준이가 27일자로 스무살이 된답니다. 매일 계속되는 마들립에 힘들어하고 있을 동준이에게 모두 축하의 말을 한마디라도 건네 주십시오. 동준이 화이팅!

(싸이더들)

·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4580

법대 학생 대표자의회

법대 학생대표자의회가 8일(목) 사회과학관에서 열렸다. 재직인원 22명 중 18명이 참여해 열린 이날 회의는 △정기총회 상사가능인원 변경 동의 의회, 개정 △을통해 및 총노선 인준 △법대 발전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에 총노선 기조로 '학생들과 함께 하는 법대 발전 방안 수립'이 결정되었다. 이날 행사 후 법대학생회장 김현식(3)군은 "최근 법대내에서 대표자들이 모임 기회가 없었는데 99년 사업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태국어과, 고유행사 열어

서울배움터 태국어과는 14일(수) 봄의 경광에서 '총크리' 이라는 태국 고유의 행사를 진행했다. '총크리'이란 이름은 1년에 한번씩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며 덕담을 말하는 태국 풍습을 말한다. 태국어과는 그 외에도 총크리 및 노래, 태극무예, 태극무예, 민속놀이 등도 함께 진행하며 민속놀이 우승자에게는 상품도 수여한다. 이에 태국어과 회장 김한나(3)양은 "학생들과 같이 하는 행사가 됐으면 하며 일반 학생들에게도 태극을 알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신방과 총회, 사업 논의

신분방송총회는 지난 8일(목) 오후 6시 대학원(6001)호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재직인원 150명중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과 학생회 사업 논의 △과학생회 위상 강화△집행부 사업 보고 △소모임 연석 회의 제안 △과 학생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체계 구축 등의 안건이 통과되었다. 또한 과 학생회는 총노선 토론 시간과 개별 토론시간을 통해 학생 참여가 배제된 계절제와 학제 개편의 실효를 내세웠다. 이날 정기총회를 마친 후 과 학생회장 오기현(3)군은 "총노선 안건들을 충실히 이행해 99년 해를 잘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태리어과 정총 열려

서울배움터 이태리어과 정기학생총회(정총)가 지난 9일(금) 대학원(6001)에서 재직인원 120명중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총에서 총노선 △소모임 강화 △집행부 회계제 강화 △등문과와의 연대 강화 △스태이포스(내달인드)이태리, 포르투갈, 스칸디나비아)세국대 개회 등이 논의됐다. 또 이태리어과의 학부제 도입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명확히 공론화 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양배움터, 단대 정총 및 해오름식 열려

용인·등록금삭감투쟁 서울·학제개편 반대 중심으로 진행

지난 달 18일(목) 경상대를 시작으로 개최된 각 단대 정기학생총회(정총) 및 해오름식이 지난 8일(목) 공대행사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번 각 단대 정총 및 해오름식에서는 주로 등록금삭감투쟁으로 치러졌다.

동구어대

'등록금삭감투쟁 결의, 동구어대 학생회 합법화, 어문학과 학부제 도입 반대'를 기조로 정총 및 해오름식이 지난 달 31일(수)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대 동구어대 학생회 운영위원 및 집행부 간부 소개 △방송 사업보고 및 재정 결산 △등록금 납부 및 공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학생회측이 안건을 보고 할때 이윤환 프리랜서(화면보조)는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중앙대

같은 날 31일(수) 노천극장에서 열린 중앙대 정총 및 해오름식에서는 200여명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1학기 사업계획인준 △등록금투쟁결의 보고 △단대내외 소개 등을 진행했다. 또 각각 새내기 노래 경연대회, 노래패 해무리와 왕산물동대 공연을 마련한 후 대동놀이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

공대

'등록금삭감 승리를 위한 강철공대인의 밤'이라는 명칭

'재단투쟁 3·30선언 기념집회' 개최

대학당국 개혁의지 미약 지적

지난 해의 재단투쟁과 3·30선언을 기념하는 집회가 지난 30일(화) 노천에서 3시간 가량 열렸다.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구악을 상징하는 풍선 터뜨리기, 학부제 실시로 변화된 과로 자리 이동해보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3·30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연설을 했고 상경대 학생회장 구준희(부여 4)군은 3·30정신 계승과 현재 진행되는 학제개편

용인, 4차 확대운영위 개최

등록금 삭감 투쟁 평가 및 이후 투쟁방향 논의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오늘(12일) 6시 공대 207호에서 4차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재까지 전개된 등록금삭감투쟁을 평가, 앞으로의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사업평가 및 4월 사업계획 △집행부정권과 반인륜적인 한총연 발표 공약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해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등록금삭감투쟁 방향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민주

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임과 학생회장 추천 김(서반하 4)군은 현재의 교육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번 집회는 지난 1년간 실질적으로 대학측이 개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대학당국이 위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총학생회는 정경호(인도 4)군은 이날 발언에서 한층 총학생회와 민중들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현재 정세에 대해 발언했다.

사범대, 구조조정 관련 비대위 열어

전 단대로 확대 여론화 의견 모아

사범대는 6일(화) 대학원 건물에서 사범대 구조조정과 관련한 신방비대위를 열었다.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사범대 학생회지의 한 실행 방안, 대학당국이 추진하는 사범대 구조조정의 문제점, 그 별 본질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총회에서 학생들은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문

제가 있으며, 지금의 사범대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전 단대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사범대 집행부 김용호(한교 3)군은 "정기총회 때에는 너무 늦게 알리 많은 아يا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이 모임을 통해 한 사범대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동양어대 해오름식

정호정 기자

지난 4월 6일(화) 서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어대 해오름식이 진행됐다. 이날 일반적인 학제개편과 국가보안법 반대'의 주제로 과후 정연대회가 열려 각과의 분위가 고조됐으며, 새내기 정기총회와 노래패 공연들이 마련돼 흥겨운 행사의 자리가 되었다.

민주노조에 참여한 용인배움터 석소현(동학·아프리카어 2)을 만나



이 사람

"새내기들과 함께 등록금삭감투쟁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집 팔고 땅 팔고 무엇이든 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마련해 주신 등록금 중에 기성회비가 붙어있는 것을 알았을때 어떤 방법으로든 등록금삭감투쟁에 동참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석소현은 새내기 때까지도 해오름식 기성회비가 무엇인지, 등록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해 선거 때 현재의 총학생회측이 내건 등록금삭감 공약을 접하고 또 여러 곳에 붙은 대자보를 보면서 부담감을 느껴 민주노조에, 공작까지 참여하게 됐다고 말한다.

"처음에 부모님께서는 '등록금을 그만들만 내도 되겠느냐' 학생들만 하는데 등록금이 깎이겠냐'고 반문하셨죠. 그러나, 처근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고 수긍하셨어요. 결코 제가 설명을 잘 해서 아니었어요. 그만큼 어려우신 거죠. 나중에 부모님에게서도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학생들이 좋은 일 한다면서 격려도 해 주셨어요'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애정이 찬 미소를 지었다.

일마침내 결혼한 한 교수의 최유진 화를 받았다는 석소현은 "정당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교수님들의 행동을 용납하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교수라는 위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라며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수업준비를 해야할 시간에 일일이 민주노부자에게 전화할 줄여 화를 하고... 교수님들이 대학당국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라고 오히려 안타까워했다.

석소현은 민주노부를 할때도 '탈법' 동아리 친구들과 다같이 납부했고 또 동아리 차원에서 등록금삭감을 위한 공연을 한 경험도 있다고 한다. 주위에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인지 더욱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부와 공작을 했다고 해서 저의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새내기들은 고지사에 기입받도록 입학금을 내야만 되는 것인줄 알고 들어왔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새내기들한테 최대한 설명하고 이야기해 새내기들과 함께 등록금삭감투쟁을 해서 2학기부터라도 새내기들이 부담한 등록금을 내게 하지 않을 겁니다"고 말을 잇는 석소현에게서 후배를 지도하려는 선배의 당찬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우혜나 기자

수강신청 취소 및 재수강신청서 제출마감은 오는 16일(금)까지입니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 FLEX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

■ 목적

학생들이 제각 중 외국어를 충실히 연마하여 전공외국어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등급을 편정, 우수한 외국어 능력 소지자에게는 그 등급을 성적증명서에 등재하고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정부 각 부처, 기업체 그리고 일반사회에서 외대출신자의 외국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평가법

영역	문제유형	문항수	배점	시간(분)	
이해	청취	객관식	60	60	30
	독해	객관식	60	60	60
표현	작문	주관식	8	40	30
회화	집단·개별	6-14	40	10-20	

■ 응시인원

가. 언어 : 영어, 불어, 독어, 노어, 서어, 중국어, 일본어
나. 지원자격 : 학과 구분없이 3학년(5개학기 이상 등록)이상 인 학생중 희망자

다.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소정양식) 1매
- (2)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3매
- (3) 성적증명서(열람용) 1매
- (4) 응시료 : 수입증지 10,000원 원서접부

■ 검정시험 일정

구분	영역	영역	영역	비고
원서접부 및 접수	4월 14일 ~ 4월 30일	평가부		
검정	이해영역	5월 30일 1000-1130	주부공고	
표현영역	6월 14일 1000-1050	주부공고	이해영역	
			회화 이상	
			취득지대 증명	

■ 문의처 : 외국어연구소

(시정각교육원 건물 1층) ☎961-4184

'99 하계 해외 영어연수 신청자 모집

■ 연수조건

연수기간	US (연수료)	US (기숙사비)	US (기타비용)	US (기타비용)
연수기간	7.7 - 8.12(5주)	8.28 - 7.28(4주)	7.12 - 7.30(3주)	
연수기간	8.13 - 8.19(1주)	7.24 - 7.30(1주)	연수 후 개별기간	
총비용	US\$ 4,200	US\$ 3,400	US\$ 2,600(2주)	

■ 연수신청자 모집

- 연수대학별 모집인원 : 각30명 이내 (신청인원이 미달되면 연수대학을 통합, 운영함)
- 연수신청서 배부기간 : '99. 4. 14(수) - 5. 7(금)
- 연수신청서 배부장소 : 양평캠퍼스 교무처, 단과대학 교학과 및 연구협력처

■ 학점인정

-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 교의 '99 제2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해외영어영역' 과목으로 표기함.

- 위 학점은 교양 및 자유선택 학점으로 기재되며, '99 제2학기 수강신청 최대학점과 관계없이 추가로 3학점을 인정함

■ 연수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기간 : '99. 4. 14(수) - 5. 10(월)
- 신청서 제출장소 : 연구협력처(서울캠퍼스 본관 1층 소책)
-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 구비서류(지원서에서 첨부된 안내문 참조), 신청비 100,000원 (신청비는 전체 연수경비에 포함되며, 연수경비는 6월 초 접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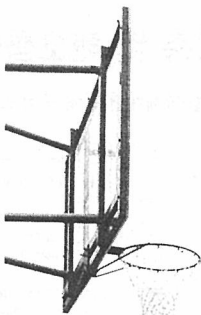
■ 기타

-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여권 및 비자발급 업무는 연구협력처에서 일괄처리함
- 연수관련 문의처 : 연구협력처 (전화 : 서울 구내 4040, 4387)

한



학생회실 소파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동대장. 곤히 잠든 모습이 수배자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동대장의 옷장은 종이방? 그녀의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아침 6시엔 활기상이다. 아침운동으로 농구를 하는 동대장.

제작 : 정효정 사진부기자



등록금 삭감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뽑은 대표자라는 생각이 든다.

자유를 향해 쏘는 슛

김대중 정부의 대검찰청 공인부는 3월 31일 기한으로 한총련 대의원들이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우리학교에도 4월 1일부터 수배자 생활을 하고 있는 한총련 대의원들이 있다. 이들을 동양대학 학생회장인 박태리(동학·태국 어 3)의 하루를 담아보았다.

원필자

‘자지안 강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동양대학 학생회장(동대장)은 4월 1일자로 수배자가 됐다. 작고 여리고 열정 언니같은 이 사람이 수·배·자 된다. 동대장은 동대학생들의 학교대표에 의해 동양대학의 학생회장이 되었으며 당연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이 됐다. 그녀가 동대장이 되어 한 일들은 학내 등록금 투쟁에 앞장서는 등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수배생활에 접어들면서 가장 힘든점은 자신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이다. 김대중 정부의 공안검찰은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에게까지 압박·희유한다고 한다. 동대장이 잠을 자는 곳은 학생회실 작은 소파이다. 출근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재부종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기도한다. 오후에 등록금 삭감을 위

한 학내집회에 사회를 봐서 그런지 놀지마자 깊은 숙소리가 들린다. 학생회실 한켠에 그녀의 옷들이 종이 가방에 두서너개 담겨져있다. 자취를 하지만 학교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옷을 한꺼번에 싸오곤 하기 때문이다. 주중에는 학교에 학생들이 많아 그녀가 안전하지만 주말에는 학교도 위험하다. 사복경찰이 학내에 들어와 대의원들을 연행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아침 6시가 되자 각 학생회 일꾼들의 아침을 깨우는 소리가 소란스럽다. 아침운동으로 농구를 했다. 골대를 향해 공을 던졌다. 비록 그녀가 던졌지만 공은 자유롭게 포물선을 그리며 뛰어올랐다. 자유롭게, 저 공처럼 만이라도 자유로운 그녀가 되기위해,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위해 오늘도 그녀는 수배자가 된다.

정효정 기자

수배자의 몸이 돼버린 동대장은 집에 전화할때도 큰일먹고 한다. ‘악해지면 안돼!’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을 요구하는 애국외대 11대 언론협의회 선언 운동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서 백인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다. 한총련은 선배열사들의 소중함 피와 땀이 응집된 조직으로 언제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제철의 과제로 삼고 투쟁하여온 조직이다. 4·19 혁명에서, 5·16 군사정변에서, 87년 6월 항쟁에서 보듯이 한총련은 애국민중의 애국심과 자신을 대변해 왔다.

이것은 청년학생이 본디 정의감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특성에 근거한다. 한총련은 이러한 선배열사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구성원 백인학우들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이다.

한총련에 대하여 정권과 공안당국이 검열과 동원하게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자기 조직의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을 결집하는 자의적 공안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것은 정당한 부당하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대총)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1998년 출범한 한총련은 1998년 4월 1일자로 1998년에는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구속처분투쟁을, 1999년에는 교육개혁추진, 대선자금공개 투쟁을, 1997년에는 4·19 혁명 기념식, 1998년에는 IMF 사태를 이겨내며 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벌여왔다. 한총련은 언제나 민족을 위해 복무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권은 한총련을 불법조직화단체로, 심지어 이적단체로까지 매도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 투쟁들을 돌아보자, 한총련이 가리키고자 했던 구호와 민족과 함께 진행했던 투쟁 중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대의원대회에서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으며, 이 단체에 기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음을 인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정권이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서 대의원들과 함께 1년의 반향을 살피는 논의와 자민한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공공력을 앞세워 막아서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일 뿐이며, 국민의 정부라고 치장해온 현정권에 역설을 하는 행위이다. 또한 김대중정권은 법적인 대의원대회에 대한 헌법적합성을 불 구상하여 한총련을 비롯한 애국민중들에 대한 전민적인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정권이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게 되면, 남는 것은 한총련 100만 학우와 4천만 민족의 분노일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애국의대 11대 언론협의회 소속 성원들은 이와 같은 한총련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정권과 공안당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하라.
- 둘째,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
- 셋째, 즉각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 넷째,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반이성적 압력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 다섯째, 민중탄압을 위해 구성된 공안대책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조국과 언론의 자주시대를 열어가는
11대 해방 언론협의회

우리는 한총련

박정호 언론협의회 회장(사학·행정 4) The Argus 선언자 명단 최유진 편집장(동양·태국 어 3), 송재경 교육부장(동학·박인어 3), 오동훈(공대·원공 2), 김진영(사학·영 어 2), 박정호(사학·영 어 2), 박호주(동구·폴란드어 2), 강윤정(인문·언어학 2), 이상환(사학·영 어 2) 서울배틀러 외대교육방송국 박보민 실무국장(사범·한교 3), 임태우(상경·무역 2), 김민아(동양·태국 어 2), 이우현(중앙·이언어 2), 이운정(사범·한교 2), 외대·교지 편집위원회 이보라 편집장(동양·중국어 3), 이세호(사범·한교 2), 김성진(동학·중국어 2), 이우희(동구·루마니아어 2), 황현주(동구·루마니아어 2) 외대학보 임승희 편집장(동양·타국어 3), 김경희 교육부장(사학·불어 3), 명재원 교육부장(사학·독일어 4), 우혜나(동학·박인어 2), 장지숙(사학·불어 2), 정호정(인문·철학 2), 수승기자·박지현(법·법학 1), 최호진(인문·인문학부 1), 윤홍운(동학·아랍 어 1) 용인배틀러 외대교육방송국 남필희 실무국장(공대·영어계속 3), 윤우희(사학·러시아어 3), 홍재숙(사학·불어 3), 윤배숙(공대·영어계속 3), 김효진(동학·태국 어 2), 이민우(동학·박인어 2), 오현우(사학·영 어 2), 황현주(동학·태국 어 2), 권동환(사학·영 어 2), 박인(동구·황기되어 2), 함지숙(사학·영어계속 3), 수승국원·유도형(공대·전자계 1), 김보현(사학·독일어 1), 김민정(동학·태국 어 1), 강성희(상경·경제 1), 윤홍준(동학·인도어 1), 윤지연(동학·태국 어 1), 오희나(사학·독일어 1), 은나영(동구·체코어 1), 이준진(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1), 홍기희(사학·영 어 1), 박운경(사학·독일어 1), 방윤식, 이우현, 윤경원 중앙집행본부 강민홍(사학·독일어 4), 이승호(사학·신학 4), 권영철(동학·박인어 4), 전승현(사학·스페인어 4), 김명준(사학·행정 2) 등 50명